



계명대학교 소식
2011.VOL.56. 가을호 Keimyung University News



KMU NEWS VOL . 56 . 가을호

KMU Spirit

04 Special Issue I / 신일희 총장,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 수훈

06 Special Issue II / 계명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학 센터’ 설립

07 Special Issue III / 경쟁력 키워가는 ACE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10 Season Photo / 캠퍼스의 가을풍경

12 인물 포커스 I / <내 몸의 커피, 내 안의 행복> 저자 / 배재훈 교수

14 인물 포커스 II / 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 기계공학과 이정화 교수

KMU IN & OUT

16 계명 컬럼 / 국내 교류대학 수학 체험수기

김민경 (언론영상학과)

18 레드카펫 / 제26회 중국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구성은 (체육학과 박사과정)

20 레드카펫 / 2011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종합우승'

속도위반 (기계·자동차공학과 자작동아리)

22 레드카펫 / 제22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수상

김다영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4 계명의 향기 I / 국외봉사활동 체험기

이진용 (경찰행정학과) & 손수진 (미국학과)

26 자랑스런 계명인 / 유엔기구 FAO에서 인턴 근무

최영윤 (KAC 국제관계학과)

28 Global Campus / 외국인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

사낫 (경영학과) & 알렉스 (경영학과)



20



22



26

KMU Story

30 기자가 본 계명 / 내가 '계명(啓明)' 을 좋아하는 까닭

동아일보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권효

32 기획특집 /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36 it's new / 나의 스페셜 관리해주는 특급 매니저, COMpass K

38 계명의 향기 II / 자원활동가 모임 '벗바리'



38

Zoom in KMU

40 KMU Brief News

44 동산의료원 소식

46 모교 사랑 / 발전기금 조성 안내

신일희 총장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 수훈

국제교류에 많은 활약을 해오고 있는 신일희 총장이 지난 7월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 훈장을 수훈했다. 이 상은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독일 최고의 훈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독일 최고의 훈장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한 – 독 (韓-獨) 간의 문화교류와 국제관계 개선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21 일 (목) 오후 6시 30분 성서캠퍼스 의양관에서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 (The Commander's Cross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은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독일 최고의 훈장으로 한스 – 울리히 자이트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가 크리스티안 불프 (Christian Wulff)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하여 신일희 총장에게 이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서훈과 관련해 크리스티안 불프 (Christian Wulff)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은 “계명대 신일희 총장은 독일 친선단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 – 독 (韓-獨) 간의 문화교류와 국제관계 개선에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고 밝혔다.



“ 제가 그동안 받은 어떠한 영예보다도 이번

대십자공로훈장 수훈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준 진정한 친구와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언제나 독일을 소중한 친구라

여기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와 국민들의 호

의에 대해 잊지 않고 양국 간의 우호 증진

과 교류에 더 힘써 좋은 친구이자 협력자

가 되고자 합니다.”

04
05

한 – 독 간 문화교류, 관계 개선에 공로 인정받아

신일희 총장은 1965년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독일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훌볼트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1978년 계명대 총장으로 부임한 해 국내 최초로 계명대에서 독일서적전시회를 개최했고 1982년에는 독일학과를 설립했다. 198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독어독문학회(IVG) 집행이사로 선임돼 한국의 독어독문학자들이 국제독어독문학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10년 한국 독일협회가 창립되는 데 큰 공헌을 하는 등 한국과 독일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은 1951년 당시 호이스(Theodor Heuss) 독일 대통령에 의해 제정됐으며, 정치, 경제, 사회, 학문 등의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기리는 훈장으로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고(故) 김수환 초기경,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받은 바 있다.



계명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학 센터’ 설립

계명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동방학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계명대는 우즈베키스탄과 활발히 교류하며, 중앙아시아에 한류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일희 총장 및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산하 동방학 연구소, 세계경제외교대학, 타쉬켄트 경제대학, 국립예술디자인대학, 타쉬켄트 센유경공업대학을 차례로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계명대 패션대학을 포함해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참가한 ‘ART WEEK 2011’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계명대는 신일희 총장과 아브두하리모프 동방학 연구소장, 전대완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방학 연구소와 상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 수행 ▲역사, 경제,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 학술자료 및 정보 교환, 공동 연구프로젝트 ▲학회, 강의 원탁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및 방문 등이다. 또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 연구소 내에 한국학 센터를 설립키로 해 지난 10월 24일(월) ‘한국학 센터’ 현판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계명대는 이 연구소와의 교류를 발판으로 향후 우즈베키스탄 학술원과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산하 정치, 경제, 법, 예술 등의 관련 연구소와 다양한 형태의 학술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방학 연구소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아랍어로 표기된 다양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고, 이 중에는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한 자료들도 다수 포함돼 국내 다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연구 결과가 한국 역사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신일희 총장 및 대표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해 특강하고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세계경제외교대학에 IT 전문가 파견과 타쉬켄트 경제대학 내에 테크노파크 설립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했으며, 미술, 조각, 공예, 패션 관련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대표 대학으로 알려진 국립예술디자인대학과 학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바하디르 자랄 교수를 계명대에 초빙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ART WEEK 2011’ 주관기관으로 계명대 패션대학을 초청하고 부스를 제공한 타쉬켄트 센유경공업대학과도 학술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디에프 교육부 장관과 우 – 한 친선협회 회장으로 있는 굴리야모프 전 교육부장관을 만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친선과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하는 등 활발한 민간외교 활동을 펼쳤다.

☆ ☆ ☆ ART WEEK 2011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행사로 전 세계 패션 전문가와 브랜드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보스, 폴 스미스, 자라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대거 참가했으며, 대학은 세계적인 패션명문인 영국 런던칼리지와 계명대 패션대학 단 2곳만이 초청됐다.

경쟁력 키워가는 ACE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잘 가르치는 대학(ACE)에 선정돼 110억 4천 만 원(연간 27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 계명대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내실을 다져가고자 학부선진화사업단에서는 특성화된 ACE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쏟고 있다.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이란 2010년부터 시작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4년 동안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모델을 창출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1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는 98개 대학 중 9개교가 선정돼 경쟁률이 11:1에 달했다. 특히 계명대는 지방대학 대규모 분야 (재학생수 1만 명) 이상에서 지방 사립대학 중, 그리고 영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06
07





지방사립대 중 유일하게 ACE 지원사업에서

‘지방 대규모 부문’ 대학에 선정된 계명대는
국제화와 산업연계형 전공교육 체계화 등으
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43개국 207개 대학
과 교류하고, 모든 학과에 외국인 전임교원을
두고 있다.

‘Creative Global Citizen’의 얼굴’ 만들기

ACE 사업은 계명 인재상인 ‘Creative Global Citizen’ 양성에 집중된다. 학부교육 선진화사업 추진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지역과 국가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CE 사업은 크게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와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K-STAR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계명 인재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4개의 특성(도전적 개척정신·윤리적 봉사정신·국제적 문화감각·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정해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졸업 시 ‘창의적인 국제인’의 역량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계명대뿐 아니라 대구 지역 명소로 알려진 아담스채플, 계명한학촌, 행소박물관, 계명아트센터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적 소양을 고취시키는 ‘계명 Culture Tour’ 프로그램, 재학생, 교직원, 졸업생을 비롯해 모든 계명대 구성원이 함께 공부하며 서로 돋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면학분위기를 이끄는 ‘K-Circle’, 학부교육 선진화사업의 성공과 계명대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 대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교수 – 학습지원 체계 선진화’에도 투자하여, 차세대 스마트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COMpass K) 개발 및 운영, 학생들의 러닝 포트폴리오와 교수들의 티칭포트폴리오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Creative Global Citizen

글로벌한 시각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계명 Culture Tour
글로벌 시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 수준 제고

계명 ‘Culture Tour’는 계명대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 수준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계명 ‘Culture Tour’는 학생 1천 명을 선별해 음악 (아담스채플), 전통 (한학촌), 역사 (행소박물관), 예술 (계명아트센터) 프로그램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여 발부된 수첩에 확인도장을 찍도록 했다. 한편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계명 ‘Culture Tour’ 프로그램 이수 인증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학생역량진단프로그램 COMpass K 포인트를 부여하며, 계명아트센터 뮤지컬 관람권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 학생을 위한 푸짐한 시상도 계획돼 있다. 1등을 차지한 2명의 학생에게는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중 1대를 시상하며, 2등 3명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각 1매, 3등 10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각 1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2012년 1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실무적, 창의적인 설계인력 양성

학부 재학생들에게 산업 현장 등에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된 프로젝트이다.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는 산업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팀원들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도전정신, 창의적 발상, 문제해결 능력, 현장적응 능력, 의사결정 능력, 경제성 평가능력 등 실무적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업단에서는 이를 평가해 최종 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팀당 1백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팀은 지도 교수 1명과 학생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한 학기 활동 후 2012년 1월 2일 결과보고서 (결과물 포함)를 단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 – 연구프로젝트 교과목 확대
학부생이 교수의 연구에 직접 참여

08
09

K-Circle (학습동아리)
학습계획서 평가로 선정하고,
팀별 지원금 지원

K-Circle(학습동아리) 820개팀 덕에 캠퍼스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서로 돋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재선정된 우수 K-Circle 은 총 400개 팀으로, 1억 6천만 원의 교비가 투입되어 팀별로 4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교재구입비, 회의비, 간식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K-Circle(학습동아리)에 선정되면 사업기간 동안 (10월~1월 13일)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10회 이상의 학습 모임을 가져야 한다. 2012년 1월 2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우수 Circle 선발 및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의의 경쟁도 이끌고 있다.

학부생이 전공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신지식 습득을 통해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현장적응 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팀은 연구과제 수행교수 1명과 학생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금은 1백만 원이다. 지난 10월, 총 100팀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연구과제 수행교수는 팀이 한 학기 동안 과제 수행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하며, 진행 정도를 점검한다. 한편 한 학기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12월 마지막 주까지 단대 행정실에 제출하며, 이와 관련해 우수팀 선발 및 사례집 발간도 계획되어 있다.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
<http://cms.kmu.ac.kr/user/ace2011/>



秋

노랗게, 빨갛게 가을이 내려앉은

캠퍼스를 거닐어 봅니다.

자연이 뽐어내는 아름다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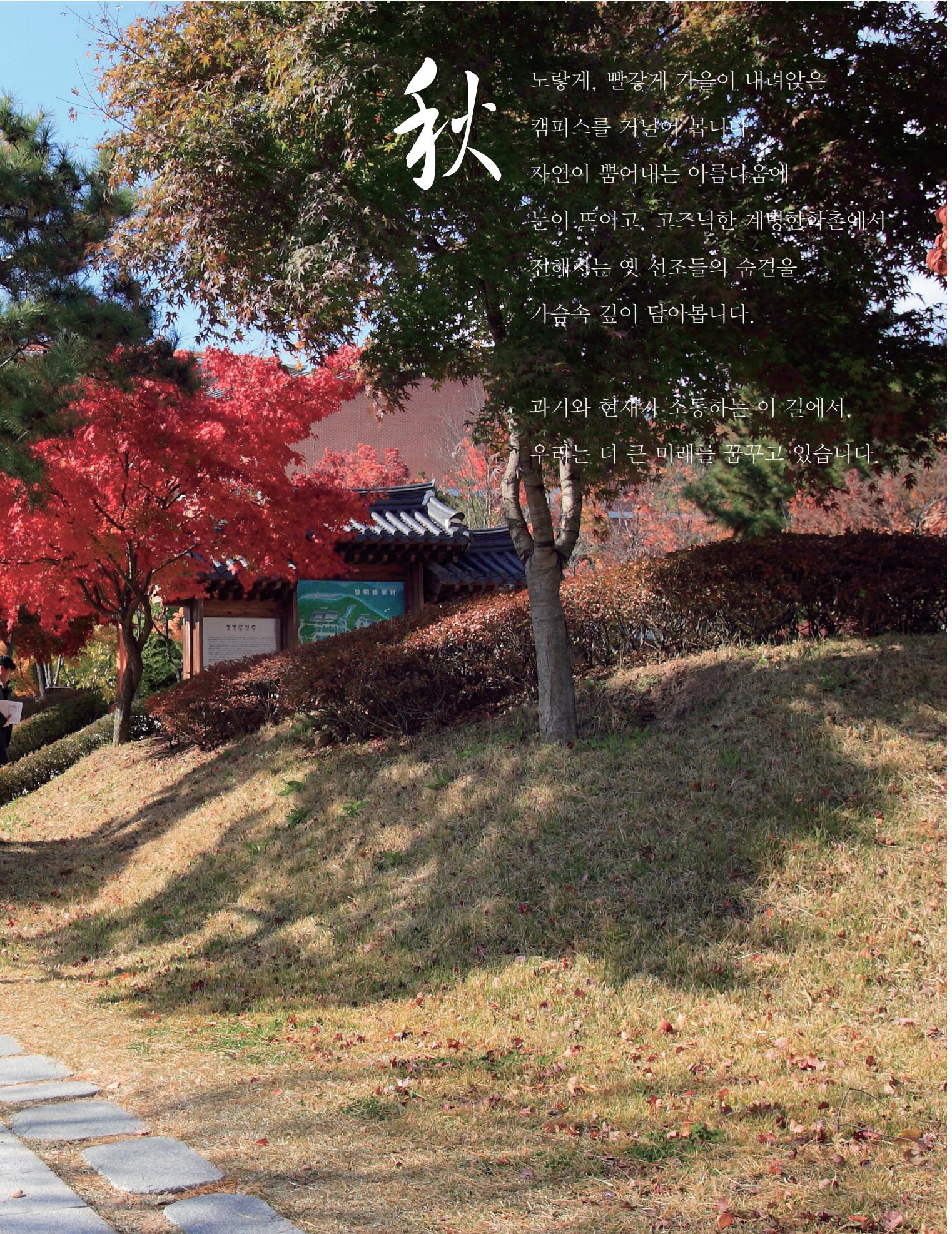
눈이 뜨이고, 고즈넉한 계행한학촌에서

전해지는 옛 선조들의 숨결을

가슴 속 깊이 담아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궁금증도 많았던 배재

훈 교수가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나섰다. 커피

관련 논문과 자료를 취합하고, 연구하고… 의

대 교수가 커피를 대하는 자세는 그러했다. 지

난여름 〈내 몸의 커피, 내 안의 행복〉을 발간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재훈 교

수는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으며, 커피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의대 교수가 커피를 만났을 때

배 재 훈 교수

〈내 몸의 커피, 내 안의 행복〉 저자
의과대학 생리학 주임교수,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

커피와 함께하는 일상 중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으로서 ‘동산의료원 성서캠퍼스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말 신축할 동산의료원의 설계가 완료되었고, 오는 2014년 말, 2015년 초가 되면 신축 이전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동산의료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모든 구성원이 매달려 힘쓰고 있습니다.



시작은 벤쿠버 카페에서

1997년에 교환교수로 1년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지냈었습니다. 시내 한쪽으로 늘어선 거리 카페에서 원두커피를 마셨는데, 다른 세계를 만난 듯 정말 맛있었습니다. 원두커피를 처음 마신 그 감흥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맛있다는 커피전문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마침 대구에는 토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다양한 숍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커피를 즐기는 애호가에 불과했습니다.

커피, 마셔도 되겠습니까?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 자주 나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이런 병이 있는데, 마셔도 괜찮을까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료전문인들마저도 건강에 대한 커피의 효능을 무척 궁금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 역시 약간의 당뇨가 있는데, 커피가 좋다는 기사를 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분비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커피와 건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성병과 커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직접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1년간 써를하며, 원고만 170 매

그렇게 1년간 국내외 커피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으며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만 A4 170매에 달했고, 자료만 너무 파고든다는 아내의 조언에 3개월간 바리스타 공부도 하게 되었죠. 연구를 하면서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5잔까지 마셨을 때는 우울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7잔 이상으로 넘어서면 오히려 우울지수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10만 명을 2~30년 추적 조사한 결과라 신뢰도도 높은 논문이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기 위해 3~4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커피가 몸에 이로운 경우, 해로운 경우, 주의해야 할 경우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테면, 당뇨병이나 간(간염, 간경화, 간암) 질병,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이로운 경우이고, 심혈관 질병은 해로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렇듯 질병별로 구분해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개인적인 제안도 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자연히 새로운 관심 분야도 생겼습니다. 커피의 주요성분인 항산화제나 클로로겐산 등에 관심이 생겼고, 현재 관련 실험과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책을 내게 된다면 직접 실험한 연구 결과도 추가적으로싣게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 아닌 단행본 발간은 처음이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책 제목은 지극히 논문스러운 <커피와 건강>이었죠. 계명대 출판부의 도움으로 <내 몸에 커피, 내 안의 행복>이라는 제목이 정해졌고, 표지도 ‘20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시각디자인과 임현우 교수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어 보다 멋진 책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커피, 작은 정신적인 호사

커피에 대한 결론은 커피는 건강과 관련해 장점과 일부 단점을 갖고 있는 매혹적인 기호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신선하고 좋은 원두, 너무 많이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를 각자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추출해 하루 세 잔 정도로 조절해 마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책에서 말하는 커피는 모두 설탕이나 프림을 섞지 않은 원두커피이다). 보다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커피는 건강식품이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작은 정신적인 호사다’라고 말한 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재훈 교수

- 1986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1 계명대 의학박사 학위 취득
- 1997~1998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교환교수
- 2009~2011 동산의료원 기획차장
- 2005~2010 계명의대 동물실험실장
- 현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



“앞으로 독일과 한국의 기술, 연구 및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저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모교를 방문해서 후배 및 선배님들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픈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정화 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이정화 동문은 지난 4월부터 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업공학과 학부생에서 이국땅 독일에서 교수가 되기까지 20여 년. 그 여성은 마치 모든 순간순간들이 꿈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처럼 평탄해 보인다. 하지만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내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철없는 학생, 가르침을 받다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학부생일 때는 소위 말하는 철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할지,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랐던 때였죠. 하지만 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자기 개발과 성장을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셨던 경영공학과(구 산업공학과) 이문규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대학시절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과의 인연, 그 시작

독일과의 인연은 1999년 계명대학교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에 근무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여러 업무 중 해외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지원 업무로, 독일, 미국, 중국 및 태국 등의 대학교, 회사와 학생교류, 교수 및 전문가 방문, 기술협력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독일측 파트너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Beuth Hochschule für Technik Berlin(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 구 베를린 기술대학)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지금은 이곳의 교수가 되었네요.

INPRO GmbH, 본격적인 독일생활

본격적으로 독일에 간 것은 2004년 3월입니다. 센터 근무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후 과정(Post-Doc.) 겸, 해외 경험을 쌓고자 6개월의 계획을 짍고 떠난 것이죠. 처음 독일에 와서는 INPRO GmbH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NPRO라는 회사는 독일 자동차 생산업체 (Daimler, Volkswagen, Siemens, Thyssenkrupp)의 자회사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계획용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독일의 큰 자동차 회사가 모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모기업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이 저의 주업무였는데, 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가 마음에 들었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도 좋았습니다. INPRO GmbH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독일생활이 시작되었죠.

실용중심 교육 대학의 교수로

INPRO GmbH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2004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고, 올해 4월 임용 전까지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경험과 인맥을 계속 쌓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수직에 지원까지하게 되었죠.

독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대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중심의 Universitaet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중심의 Fachhochschule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실용중심 교육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산업공학과 박사 과정 수업 중에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께 한 학기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독일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실용중심 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독일에 와서도 근무했던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독일 동료들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타 회사의 담당자들도 Fachhochschule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로부터 실용중심 교육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몸담았던 모든 곳들이 현재의 자리를 만들어준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남짓입니다. 한국과 독일에서의 강사 경험을 합치면 거의 10년이 넘지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강의를 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노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살지 않길

끝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만의 꿈을 명확하게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선배, 친구, 후배 등등,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지구력과 집중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이것 이야기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점점 그 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힘이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화

- 2011. 4~ 베를린 보이트 기술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 2007. 7~2011. 3 INPRO GmbH 프로젝트 담당자 및 연구원
- 2006. 6~2007. 6 Consultant(Freelancer) ; 고객 Volkswagen AG
- 2004. 9~2006. 2 INPRO GmbH 프로젝트 담당자 및 연구원
- 2004. 3~2004. 8 INPRO GmbH 박사 후 과정(Post-Doc.)
- 1999. 3~2004. 2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계명대) 연구원
- 1997. 3~2004. 2 계명대 산업공학과 대학원 박사
- 1995. 3~1997. 2 계명대 산업공학과 대학원 석사
- 1989. 3~1994. 2 계명대 산업공학과 학사





소중한 자산, 자신감을 얻었어요

2학년을 마치고 1년 휴학 후 학교로 돌아온 나는 복학생의 지루한 삶에 조금 씩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에게 떠오른 것이 ‘교류학생제도’ 였다. 서울대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느냐 새롭게 도전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었지만 곧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에 적응하는 것이 사회로 나갈 나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원래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편이다. 막상 신청서를 내고 난 후부터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져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느라 2월을 다 보내게 되었다.

국내 교류대학 수학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수학)

김민경 언론영상학과 4학년

원하는 것은 다 해볼 수 있다.

서울대의 수업 !

아무래도 서울대로 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공부, 공부 또 공부일 것이다. 그래서 시간표를 어찌 짜야할지가 가장 고민되었다. 전공으로만 채우는 것은 너무 부담이라 전공 3개, 교양 3개로 17학점의 시간표를 완성했다. 음악,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서양 음악의 이해, 공연 예술의 이해, 종교와 영화 3개의 교양수업을 들었다. 나중에 이 세 개 수업이 모두 서울대 인기수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심 흐뭇해했던 기억이 난다.

‘서양 음악의 이해’는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음악을 감상하고 그 음악가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 감상시간이었다. 학기 중 음악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직접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피아니스트를 섭외해 우리들만을 위한 연주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종교와 영화’라는 수업이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사실 강사가 ‘이동진’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영화평론가라고 해서 수업을 신청했었다. 수업시간마다 교수님과 팬미팅 하는 기분을 만끽했다. 하지만 교수님 스스로 학교에서는 까다로운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실 정도로 과제가 만만치 않았다. 학기 내내 7편의 영화 감상문을 제출하고, 5장 분량의 에세이와 기말고사까지. 하지만 이 힘든 것을 다 이겨 낼 만큼 수업이 좋았다. ‘공연 예술의 이해’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가져다준 수업이다. 수업 과제는 학기 중 연극을 보고 감상문을 3편 제출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대학로 소극장까지 다양한 공연장을 가볼 수 있었고,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 전



공수업인 ‘저널리즘의 이해’는 수업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중간고사 이후로 시작된 조 발표는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 서울대생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현직 기자들과 전화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그분들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언론학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외에도 영어원서를 교재로 하는 수업으로 나에게 충격을 준 ‘정치학원론’, 내용이나 시험은 너무 어려웠지만 자발적인 토론형식의 수업이 새로웠던 ‘한반도와 국제정치’까지 서울대의 수업이 만만치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시간마다 예습, 복습을 했고,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본격적인 서울대 친구 사귀기, 동아리 가입!

3월 중순이 되자 동아리모집이 시작되었다. 11 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신입생 아닌 신입생 대접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나는 기독동아리(CCC) 생활을 하면서 공대에서부터 음대까지 다양한 학과의 04학번~11학번까지 폭넓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또, 동아리에 들면서 서울대에 대한 소속감이 커질 수 있었다. 동아리방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였다. 교류학생으로 온다면 꼭 서울대 어느 모임이든 소속되기를 추천한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서울대 특강

고작 한 학기였지만 내가 봤던 특강 공지만 해도 수십 개였다. 가수 비, 김난도 교수, 하일성 KBO 위원, 노화찬 고문, 정성후 CP,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 송영길 인천시장, 전직 대법원장 등 수도 없는 특강들이 쏟아졌다. 나는 이 많은 강연들 중에 노화찬, 김난도, 정성후 씨의 특강에 참여했었다. TV에서나 보던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고 직

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다. 사실 특강에서 이뤄지는 연사의 강연 내용뿐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 또한 상당히 심오해 그것마저도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서울대 교류학생 그 이후

서울대에서의 한 학기가 그리 농록치는 않았다. 많은 학습량과 과제,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었다. 이번 학기는 내 능력과 한계를 모두 체험해본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에게 남은 것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그들을 통해 본 새로운 세상은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다. 주위의 여려 사람들이 교류학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스스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준다.



예비 서울대 교류학생에게 전하는 팁

01 서울대는 관악산 바로 밑에 위치해 여느 기상예보에 나오는 서울 날씨보다도 훨씬 더 춥다는 걸 감안해 웃을 챙겨가야 한다.

02 길을 헤매기 십상인 학기 초에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03 백팩 아니면 빅백이라도 장만해야 한다. 사물함 배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교재를 들고 다녀야 한다.

04 서울대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 공부만 하기보다는 몸으로 직접 부대끼기를 추천한다. 동아리이든, 외부활동이든, 여행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 사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05 개인적으로 전공보다는 교양수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몸소 체험하게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또, 나는 듣지 못해 아쉽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니 스포츠 관련 수업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06 서울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 교수님의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손을 들어 대답한다. 또 조 발표 시에도 토론이 매우 활발하고 질문이 날카롭다. 우리 학생들이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적극성’이다.

07 서울대 정보를 얻는 사이트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이스nu – my.snu.ac.kr(온라인 행정정보), eTL – etl.snu.ac.kr(수업자료나 과제제출), 스누라이프 – snulife.com(서울대학생 커뮤니티 ; 강의평가, 도서관, 식당 메뉴 어플 등)

☆ ☆ ☆
국내대학 학점교류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들이 자매대학 및 교과과정 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부산대학교,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지역대학연합(경남대학교, 관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이상 12개교와 교류가 가능하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소감은?

솔직히 아직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금메달을 딴 것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데, 한국 최초라니 더더욱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시합 전 두 달 동안 대표팀에서 매일 남자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오전 오후로 각 세 시간씩 훈련을 하고, 도로장거리 훈련일 때는 서너 시간씩 160km 정도 훈련을 해왔어요. 또 한 가지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시합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자 개인 도로 120km 경주는 8.7km 코스를 열네 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기록이 3시간 31분 42초였는데,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다른 생각은 들지 않고, 오로지 시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파악하고, 시합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하죠. 결승선 전까지는 최대한 힘 안배를 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대화하듯 기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금메달이라 더 기뻐요

제26회 중국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

구성은 체육학과 박사과정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가 되고픈 막연한 꿈이 있었다는 구성은 씨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이클을 시작했다. 고된 훈련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구성은 씨는 좋아하는 운동인 만큼 힘든 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지금껏 페달을 놓지 않고 달려왔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그녀는 지난 8월 중국 선전시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사이클 역사상 국제대회에서의 첫 금메달이었다.



사이클 선수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무작정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마침 중학교에 사이클부가 있었어요. 감독 선생님께서 권유하셔서 망설임 없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반대하셔서 여름방학 내내 졸라서 허락받은 기억이 나네요.

선수생활을 하면서 슬럼프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이클을 시작한 지 14년째이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기에 힘든 것도 순간일 뿐이고, 그것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어려운 점을 꼽자면, 사이클이 야외운동이라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추운 겨울날씨에 도로훈련을 하는 건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슬럼프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2008 베이징올림픽' 후부터 약 1년 동안 성적을 잘 내지 못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슬럼프로 보였을지 몰라도 전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해왔어요.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고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내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나요?

힘들 때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생각하면 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과 똑같이 해선 결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 또한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는 믿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인기 종목인 사이클, 그 매력을 꼽아주세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와 오르막에서의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이겨낸 후의 그 성취감과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이클 경기를 직접 보면 누구라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유럽에서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의 상황이 아쉽기는 하지만 요즘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 사이클의 인기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경력

앞으로의 계획은?

2012년 런던올림픽 티켓을 따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다음은 당연히 올림픽 출전입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게 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박사과정을 마치면 사이클 연구원이 되어서 열약한 국내 사이클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모습을 중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것 같아요.

18
19

- 2002 Asia Junior championship 5 gold medal
- 2002 World Junior championship 2 silver medal (한국 최초)
- 2004 TRACK Worldcup silver medal (한국 최초)
- 2005 Asian championship 2 gold medal
- 2007 B World championship ROAD race Bronze medal(한국 최초) TimeTrial Silver medal
- 2008 Beijing Olympic Road race enter
- 2011 Asian championship Road race Silver medal
- 2011 World Universiade Game Road race Gold medal(한국 최초)



제26회 중국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수상

‘체이서(chaser)’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2011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서 완벽한 주행을 선보이며 속도위반팀에 종합우승을 안겨다준 ‘체이서(chaser)’. 속도위반팀이 직접 설계하고, 철근 하나하나 그라인더로 직접 잘라 용접하여 두 달여에 걸쳐 완성한 자작자동차이다. 모든 걸 쏟아부은 만큼 그 뿐 듯함도 더없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속도위반팀은 거침없이 도전하는 열정으로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2011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종합우승’

속도위반팀 기계·자동차공학과 자작자동차 동아리

자작자동차는 어떤 것인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어, 엔진, 완충기는 외부의 부품을 활용하지만 차체와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은 직접 설계해서 만듭니다. 기계로 철근을 가공해 용접도 직접 맙아 차체를 만들기도 하죠.



종합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번 대회에서 Baja 부문(오프로드 타입 · 가속, 스피드 및 내구성), Student Formula(온로드 타입 · 시범경기), 기술부문(기술아이디어 및 디자인)을 통합한 120개 팀 중 전체 1위인 종합우승(KSAE Grand Prix)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내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승전은 내구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해진 트랙을 스무 바퀴 주행하는 것인데, 오프로드라서 돌과 물이 있는 혐한 길입니다. 완주하는 경우가 10개 팀도 안 될 정도였죠. 앞선 가속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3등을 했지만 내구성 면에서 앞서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자 노력해서 스피드를 올렸기 때문에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빙 실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드라이버 역할도 중요합니다. 운전 실력은 기본,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순발력이 뛰어나야 하고, 최대한 가벼운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1종 보통 수동 면허도 필요하죠. 우리 팀의 드라이버가 그 역할을 잘해줬고, 팀원 모두가 맑은 파트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었기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사실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어느 정도 만들고 보니 대회에서 정해진 안전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주간 다들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새롭게 작업을 했어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께 실망시켜드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도 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타 대학의 자작자동차 동아리를 보면 동문 기업 등에서 스폰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작자동차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고 달리죠. 아직 우리 팀에는 스폰서가 따로 없어서 대회 준비에 조금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만들었던 차를 뜯어서 여러 부품과 차체를 재활용하여 대회에 출전하고 있거든요. 가속경기에서 '체이서(chaser)'는 시속 6~70km 정도인데 다른 팀들은 시속 100km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다 좋은 부품을 쓰고 매번 대회 때마다 새 부품을 쓰는 팀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우승을 하게 돼 더욱 기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대회에 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있었던 미국대회에서 16등을 차지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참여하는 대회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속도위반팀이 참가한 대회여서 각오가 남달랐죠. 미국과 기술력에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동양 팀으로는 최초로 16등까지 올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대회에 참여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기술력도 보다 향상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내년에도 5~6월 중에 미국대회가 열리는데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다시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20
21

☆☆☆

2011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KSAE Baja 2011)

지난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대회로,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회에는 이륜차 엔진(125cc)을 이용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해 가속 및 주행경기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데, 올해에는 전국 70개 대학에서 120개 팀이 참가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속도위반팀은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우승기, 트로피, 상장 및 상금 400만 원을 수상했다.

속도위반팀

송치훈(4), 김현모(4),
윤진영(4), 현준수(3 팀장),
윤권수(2), 최지원(2),
홍현경(2), 채인찬(1), 한솔(1)



신들의 정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했어요

지난 8월, 제22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다영 씨는 하늘과 열매, 빛…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평소 가져온 생각들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너무나도 재미있다며 눈빛을 반짝인다.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법.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더없이 즐거워 보인다.



작품명
인디언 썸머(Indian Summer)

제22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수상

김다영 텍스타일디자인학과 3학년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은 어떤 대회인가요?

젊고 유능한 섬유자물(텍스타일) 신인 디자이너 발굴을 위해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국내 섬유·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11' 행사의 하나로, 이번 수상작들은 국내 유수의 섬유·패션 기업들이 어패럴, 홈텍스타일, 잡화 등 다양한 텍스타일 시제품을 만들어 행사 기간에 소개하기도 했어요. 제 작품은 예쁜 원피스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여 개의 대학 학생들과 일반인 1,800여 개 작품이 공모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학과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있었고, 올해에도 저를 포함해 본상과 기관장상 수상자도 여섯 명이나 됩니다.

상금은 어떻게 했나요?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인데,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요^^ 집이 포항이라 동생과 같이 경산에서 지냈는데 거리가 멀어서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상금뿐만 아니라 10월 중에는 중국에서의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가서 더 많이 배워오고 싶습니다.

'인디언 썸머'라는 컨셉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학과는 항상 수업시간에 리서치를 합니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저는 리서치에 앞서 일단 주제가 재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인디언들의 독특한 생각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인디언 썸머도 알게 되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데, 인디언들은 이것을 신들의 정원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신이 보낸 선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모티브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뽑아내고, 인디언들의 사진을 많이 찾아보면서 머리 추장, 장식품들에서 재미있는 패턴들을 뽑아냈어요. 이번 작품에 보면 선들이 많은데, 이것은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감이 퍼져가는 느낌과 더불어 신들의 정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한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나요?

저는 고등학교도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고, 부산의 텍스타일디자인전을 접한 것을 계기로 텍스타일에 관심을 가져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적성에 꼭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과는 수업 자체가 실제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론적인 기초도 쌓지만

실기 위주의 수업도 많거든요. 평소에 교수님께서 모든 디자인의 기초는 '리서치' 라며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학과 모든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는 내내 '리서치'를 합니다. 특정 공모전을 별도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리서치를 통해 디자인을 하고, 공모전이 있으면 준비한 작품을 좀 더 보완해서 참여하는 식이죠.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쁜 패턴을 보면 잘라오기도 하고, 예쁜 열매를 보면 열매 이름을 외웠다가 검색도 하고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작품의 소스로 생각합니다. 한번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커피 잔을 비추는 '햇볕'이 너무 예뻐 보여, 한 학기 주제를 '빛'으로 잡아서 '리서치' 한 적도 있어요. 또 학교에는 디자인 서적이나 자료가 많고, 컴퓨터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텍스타일디자인은 옷, 침구, 접시, 벽지 등등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것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 더하면 어디든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저는 인테리어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컴퓨터 작업 능력과 토익 실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책도 많이 읽고 해서 '리서치'를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제22회 대히림국제스탈리디자인대전 대종합상 수상

김다영 텍스타일디자인학과 3학년



멋진 공연의 감동이 긴 여운을 남기듯, 국외봉사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은 한동안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12박13일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물론, 함께한 팀원들과 나눈 친~한 감동은 너무나도 뜨겁단다. ‘내 삶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할 만큼 열정을 불태우고 돌아온 손수진 씨와 ‘함께한 봉사팀원들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며 뜨거운 동료애를 말하는 이진용 씨. 한여름의 꿈만 같았던 국외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내 삶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이진용(경찰행정학과 4학년), 손수진(미국학과 3학년)

국외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수진 : 원래는 1학년 때 신청하려 했어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니 채울 칸이 많더라고요. 좀 더 준비해서 참가하기로 하고, 국내 봉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목적은 국외봉사활동이었지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당연히 국외봉사활동에 참가하고픈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진용 : 먼저 국외봉사활동을 다녀온 친구에게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독거어르신을 돕기도 했었는데, 해외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수진 :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모래 바람에 입안이 절끄럽기도 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팀원 모두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힘들수록 서로를 더 배려하기도 했어요. 또 '할 수 있을까' 걱정됐던 일도 힘을 합하여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바뀌었죠. 36명의 우리 팀원들, 저는 36개의 보석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진용 : 저도 팀원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함께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그런지 정말 가족처럼 끈끈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점을 느꼈어요.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접하면서 시야를 넓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우즈벡에서는 한류열풍이 대단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TV에서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 '주몽'이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3박4일 문화탐방은 어땠나요?

수진 : 몽골은 아무래도 넓은 초원과 맞닿은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을 타고 그 넓은 초원, 때로는 물 위를 가로지르는 신나는 경험을 했어요. 또, 밤하늘에 떨어지는 샛별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용 : 우리나라에 경주가 있다면, 우즈벡에는 '사마르칸트'가 있어요. 이곳에는 화려한 문양의 장식이 돋보이는 이슬람 성지와 사원이 있어 이슬람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수진 : 내가 좀 더 손을 내밀면 학교에는 대내외 활동의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교 올타리를 벗어나 글로벌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관광학과도 복수전공하고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일(PCO :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이나 항공사 등 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싶어요. 경력이 쌓이면 후배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선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 졸업이 한 학기밖에 안 남았네요. 이런 대외활동에 너무 늦게 참여하게 돼 아쉽고, 한편으로는 늦게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이전에는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보호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호직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들 을 지도, 감독, 감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진로를 도와주는 업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학과 수업도 많이 들으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국외봉사활동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외교 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동계, 하계 방학 중 약 2주간 실시한다. 노력봉사, 문화 및 교육봉사, 기증봉사, 문화탐방 등으로 이뤄지며, 참가비로 총 비용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용기 있는 도전이 | 아름답다

유엔기구 FAO에서 인턴근무

최영윤 KAC 국제관계학과 4학년

대학생활에 터닝포인트를 맞으며

돌이켜보면 유엔에서 인턴근무를 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이 바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 KAC에 입학해서 1년간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모든 수업이 이뤄지고, 과제도 영어로 제출해야 하니까 수업을 따라가기가 버거웠거든요. 다시금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만큼 고민도 많았고, 학교를 다니는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삶의 목적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를 통해 교회에 나가면서 삶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죠. 수험생처럼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외국에 살다온 친구들이나 영어 특기자로 온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었는데, 학과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익점수도 높게 나오고 수업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준

비된 자,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이 기회

를 잡을 수 있다. 학부생으로서는 이례적

으로 유엔(UN)의 식량(농업, 임업, 수산업

등) 부문 최대 전문기구인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인턴

근무를 하고 돌아온 최영윤 씨가 그렇다.

용기 있는 모습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기를 들어

보았다.

3학년 때부터는 대외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방학 때 참여한 외교통상부의 '전국모의유엔대회'가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타 대학생들의 열정과 목표의식, 영어 실력과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등을 보며 스스로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후로 각종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특히 동남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교환학생으로 많은 유엔기구 지역본부가 소재한 태국 방콕으로 떠나 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곧 기회였다

교환학생으로 방콕의 어셈션대학(Assumption University)에 11월 입학을 앞두고 있던 중, 9월 말 FAO 지역총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공고를 보았어요. 지역총회에 대비해 과천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행사기간 내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공지를 보고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 있는 기구였고, FAO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방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기간 중에는 FAO 기구 직원 분들과 교류하며 명함도 받았지요. 그렇게 9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11월에는 교환학생으로 방콕으로 가서 수업도 듣고, 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지냈습니다. 태국에서의 한류열풍도 몸소 체험했고요.

그런데 1학기가 끝나는 3월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FAO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연락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기

두 달 전, 한국에서 받은 명함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 인턴근무를 희망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인턴십 공고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서도 인턴으로 석사 이상의 사람을 뽑는다고 명시돼 있어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런 후 뜻밖에도 두 달 뒤 FA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AO의 대표자와 직접 메일과 전화로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기아와 난민, 식량문제를 연결한 에세이도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오케이를 받아 인턴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한국에서 열렸던 지역총회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명함을 받고 인턴근무에 관심을 보였지만, FAO 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사람은 저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연락한 그 점을 좋게 봐서 대표에게 직접 소개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유엔의 인턴근무는 용기 있는 도전이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FAO에서의 인턴생활

FAO에서의 인턴근무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담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로 태국의 농림부와 일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 컨텍이나 학생 관련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도 공식적인 영어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막상 인턴근무를 해보니 동경의 대상이었던 유엔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아시아 개발에 힘쓰고파

FAO 인턴근무 경험은 저의 꿈과 목표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과 동남아 외교나 교류관계, 동남아 지역개발에 힘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south-south(개발도상국) cooperation'에 주목하고 싶어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원조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트렌드로서, 개발도상국 안에서의 원조나 교류에 중심을 두는 것인데, FAO 대표 분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여 목표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자

26
27

아직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인턴을 하고 나서 눈만 높아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인턴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실력을 쌓아 도전한다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방대라는 한계도 외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를 '버려진 돌'이라 생각하며 좌절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든 '모퉁이 돌'로서 중요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를 품은 계명대 우리도 계명인입니다

계명 캠퍼스를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각 학부와 대학원, 어학당 등 35개국의 1,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이 계명 캠퍼스를 누리고 있는 것. 이들 중 계명대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던 외국인 학생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낫과 러시아인인 알렉스를 만났다. 이들의 캠퍼스 생활은 그간 갈고 닦은 한국말로 들을 수 있었다.

교환학생에서 입학생으로

알렉스 / 경영학과 1학년 / 러시아

계명대에 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3년 전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당시엔 단순히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1년 동안 계명대에서 지내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너무 즐거웠어요. 전혀 몰랐던 한국이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입학해 지금은 어엿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얼마나 했나요?

사실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는 한국말은 인사밖에 못할 정도였고, 공부도 많이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학당에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존댓말을 못하고,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또, 저는 언어를 공부할 때 책만 보고 하지 않고,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 있을 때 영어도 이런 방법으로 익혔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어 실력도 키워가려고 해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한국 친구들의 마음은 어린이(?) 같아요. 러시아인들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표정이 무뚝뚝하고 딱딱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주 웃고, 해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것처럼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가족처럼 도와주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친구도 사귀며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한국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1학년이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뚜렷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낫 / 경영학과 4학년 / 우즈베키스탄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열여섯 살 때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인천으로 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즈벡에서는 16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권도 나오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당시는 온가족이 여행 삼아 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우즈벡으로 돌아가고 저와 아버지는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는 벌써 6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계명대에 오게 되었나요?

인천에서 2년 반 살다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대구로 오게 되었어요. 마침 계명대에 교환학생으로 있던 친구가 학교에 대해 소개해줬어요.

친구 이야기에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하게 되었지요. 우즈벡에서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어도 배우고, 여기서 공부하면 한국이나 우즈벡에서 취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1년 한 후, 한국어 시험을 치고 입학하게 되었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학당에서 계속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TOPIK 4급 공부를 했었고요. 말하고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국어를 쓸 때 문법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의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한국 친구들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한국 친구들 역시 외국인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편하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져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경영학과 축구 동아리인 코바(COBA)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도 하고 엠티도 가고요.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힘든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기했던 점은 우즈벡과 비교해서 한국인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즈벡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일 뿐인데, 계명대 친구들은 시험기간에 보면 모두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졸업까지 한 학기 남았는데, 앞으로의 꿈은?

졸업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우즈벡에 돌아가서 취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즈벡에서 한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계명(啓明)’을 좋아하는 까닭

“‘계명대학교’에 담긴 운명적인 뜻인 ‘사람됨의 무늬’(인문, 人文)가 계명인(啓明人) 모두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 세상 곳곳으로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는 전국의 대학 이름 가운데 계명대가 유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떠오르는 대학 이름은 대개 특정 지역 이름을 딴 곳이 많다. 그래서인지 그 이름에서 받는 여운이 별로 없다. 그런데 계명대는 아주 다르다. 계명대라는 말을 듣거나 쓸 때, 또는 한번씩 캠퍼스에 갈 때면 톡 쏘는 느낌이 있다. 잠들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일깨우는 듯하다.

나로서는 계명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다. 계명(啓明)이야말로 인문(人文, 사람다움의 무늬)을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와 ‘명’이 품고 있는 뜻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노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계’는 문을 열어 깨우치고 아끌어준다는 뜻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계명의 진면목이 아니다. ‘명’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해(日)와 달(月)이 어울린 모습이니 ‘명’은 밝음의 대명사다. 해 달 별 등 밝게 빛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깨끗하고 질서로운 것, 그래서 높여 존중할 만한 것이 ‘명’이다.

하늘에 있는 해·달·별은 하늘의 무늬(천문, 天文)요, 사람에게서 해 달 별처럼 빛나는 또는 빛나야 하는 것은 사람의 무늬(인문, 人文)다. 그러니까 ‘명’은 천문과 인문을 이어주는 사다리쯤 되겠다. 하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를 연결하려는 생각은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다.

널리 알려진 유학 문현인 《대학》의 첫 구절이 “대학(큰 배움)이 가야 할 길 (大學之道)은 밝은 덕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在明德)”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대학, 즉 큰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곧 ‘큰 인물’ (大人)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계명’과 ‘명명덕’은 별 차이가 없다. 밝고 넓고 정의로운 사람됨인 ‘명덕’이 잊혀지거나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끊임없이 이를 증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빼면 그 어디서 사람다움의 무늬(文)를 찾을 수 있겠는가.

“듣기 좋은 말이지만 오늘날 여러 분야의 학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에서 계명이나 명명덕을 명심 (銘心, 잊지 않도록 마음에 조각함)하고 늘 돌아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계명대의 어느 학과에 입학한 뒤 몇 년을 공부하면서도 ‘계명’의 뜻을 사색해보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학은 계명공학이어야 하고, 예술은 계명예술이어야 하며, 의학은 계명의 학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공학이 인문일 수 있고 예술이 인문일 수 있고 의학이 인문일 수 있다. 이 관계를 균형 잡으면서 힘차게 잘 이끌어 가는 대학인의 삶은 곧 ‘중용(中庸)’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계명은 중용과도 통한다.

계명대 캠퍼스는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꼭 ‘계명’ 두 글자의 뜻이 DNA처럼 스며있어야 명실상부하겠다. ‘계명대학교’에 담긴 운명적인 뜻인 ‘사람됨의 무늬’ (인문, 人文)가 계명인 (啓明人) 모두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 세상 곳곳으로 흘렀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도 계명대 덕분에 ‘나를 계명하고 있나’라는 반성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철학적 의미가 풍성한 ‘계명’이라는 말이 참으로 좋다.



이 권 호

동아일보 대구경북취재본부장 · 동양철학박사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계명대의 활약 빛났다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년의 핫이슈로 추억이 되어 버린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감동을 되살려 본다.



지난 8월 27일(토)부터 9월 4일(일)까지 9일간 열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신일희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활약을 펼쳤다.



한국적인 판타지아를 선보인 개막식 공연. 무용학과 학생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미가 물어나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
2
3



4

선수촌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행사

신일희 총장은 선수촌장으로서 더욱 바쁜 여름을 보냈다.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건립된 선수촌은 선수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1, 2 이명박 대통령 선수촌 방문
- 3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환송만찬
- 4 동산의료원 국제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베냉 선수
- 5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 계명대 교직원들이 '대회기념 볼로타이'를 착용하고 '대회홍보 차량용 깃발' 달기 운동을 전개



5



6 선수촌 생일자 축하 행사

7 선수촌 계명대 태권도시범단 공연

8 금메달리스트 핸드 앤 풋 프린트 행사

9 자원봉사 계명대 황태경(경영학과 2학년) 학생

10 폴란드 협회 관계자 선수촌 방문



34
35



9 선수촌장으로 활약한 신일희 총장 외에도 계명대학교 교직원들도 '대회기념 볼로타이'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하여 대회의 성공에 힘을 보탰다. 많은 재학생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숨은 일꾼으로서 통역, 경기장 운영, 행사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며 세계적인 축제를 보다 의미 있게 즐겼다.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식 메달을 백순현(미술교육과) 교수가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나의 스펙을 관리해주는 특급 매니저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나의 역량으로 취업하기에 문제는 없을까? COMpass K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쌓아갈 역량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포인트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까지 주어지는 콤파스K, 지금 바로 가동시켜보자.



(학생역량진단 프로그램 : Capability & Opportunity Mate for pass, KMU)

콤파스K의 빛을 상징하는 7개의 컬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의미하며, 다각도로 뻗어있는 왕관 모양의 삼각형은 콤파스K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온 세상을 빛내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콤파스 K로 관리받자 ☆

취업지원처 학생개발능력팀은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역량진단 프로그램 (COMpass K)'을 개발했다. 지난 6월 첫 가동된 콤파스 K는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자신의 교육 역량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영역별로 나누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역은 목표관리역량과 전공역량, 국제화역량, 봉사역량, IT 역량, 창의역량, 진로 / 취업역량으로 구분되며 각 평가요소에 따라 포인트가 주어진다. 또 쌓여진 포인트 실적에 따라 해외연수, 장학금 지급, 인증서 발급, 취업 추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콤파스 K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비전 설정, 진로 상담, 취업역량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한편, 지도교수는 학생별 맞춤식 상담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개발한 역량에 대해 개개인의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포인트 실적 따라 해외연수, 장학금도

콤팘스 K는 학생의 역량을 진단,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 학생들로 하여금 역량개발의 의욕을 북돋워준다. 포인트가 쌓여갈수록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포인트가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주어진다.

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분야별로 일정기준을 달성했을 때 매 학기마다 목표관리영역, 성적을 제외한 영역별 / 요소별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한번에 2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지난 9월에 본격적인 가동을 한 만큼 이용확산을 위해 이번 학기에만 약 6억 원의 장학금이 책정되어 있고 특별히 실적 우수자 상위 50명 ~80명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영역별 배점 기준 및 승인 방법도 제시됐다. 가령, 전공역량 영역에서 국외인턴십을 통해 15학점을 이수할 경우 55점이 주어지고, 창의역량 영역에서 전국 규모의 국내대회 공모전에 수상해 1등할 경우 50점이 부가된다. 또, 별다른 실적이 없더라도 창업관련 교양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20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면 30점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영역별 포인트 점수는 웹정보시스템에서 COMpass K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COMpass K 프로그램 이용 안내

접속

학교 홈페이지 왼쪽 메뉴 바에서 웹정보시스템 클릭

▶ COMpass K 접속

36
37

이용 방법

- 성적평가, 학점인정, 장학금 등과 관련된 항목은 전산으로 처리, 포인트 자동 부여
-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 공모전, 봉사실적 등의 항목은 학생이 웹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입력 후 자격증 원본 등 증빙자료를 단대 행정실에 제출하면 확인 후 승인, 포인트 부여
- 목표설정, 학업계획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특정 교수 면담신청도 가능
-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가 실적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 입력이 안 되는 자격증, 공모전 실적은 취업지원처로 방문하면 확인 후 입력 처리
 - 학생지원팀 주관 국외봉사활동 실적은 일괄 처리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이용문의

취업지원처 (<http://jobs.kmu.ac.kr/>)

학생능력개발팀 (580-6246)

시스템에러문의

IT 개발팀 (580-5808)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벗
자원활동가 모임
벗바리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열정
을 쏟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벗바리’를 만나 보았다.

'벗바리' 동아리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2008년, '늘 곁에 힘이 되어주는 벗'이라는 순우리말인 '벗바리'라는 명칭으로 처음 만 들어졌고, 현재 조성숙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재학생 21명, 졸업생 1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구성원은 동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활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팀, 교육팀, 관리운영팀, 자원개발팀, 기획팀, 재무팀, 홍보팀으로 조직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공모전에도 적극 참여하여 LG-굿네이버스, 한국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 등의 전국 규모와 대구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대구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전에 당선 및 입상 경 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그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수 교육을,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독서교육 등을 실시했어요. 또 각종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한 자원활동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전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활동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복지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선되면 지원금도 받게 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또 활동이 끝나면 예산 사용내역과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단원들도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2008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기능향상을 위한 한글구사능력강화 프로그램',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적응을 위한 한국어능력증진 및 문화습득 프로그램', 2010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적응교육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도 모두 공모전 사업에 선정돼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펼치고 있는 활동은?

최근에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어요. 하나는 올해 3월, 삼성생명 라이프가드 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당선된 저소득 가정 아동들과의 학창 프로그램(세상의 중심에서 소리를 외치다)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과 우리 단원들이 함께 노래를 배우면서 마음을 나누고 발표회를 가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늘 받기만 하던 입장에서 스스로가 베푸는 입장에 서게 되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피아노를 빌리고, 강사도 직접 섭외하여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성서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연습을 반복했어요. 지휘자로 섭외한 성악과 학생도 무료로 봉사해주었고, 6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10월 중순 발표회를 끝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과의 연극 프로그램으로, 달서구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공모전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늑대와 일곱 마리 어린 양' 이야기를 바탕으로 콘티도 직접 짜고 소품도 직접 제작했어요. 당초 연극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가르쳐주고자 했었는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해보니 아동들에게는 언어보다는 주변인들과의 친밀감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큰형, 큰누나가 되어서 이런 친밀감을 형성시켜 주고, 언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극 팀도 10월 중순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자원활동을 통해 느끼는 점은?

수업만 들었을 때와 달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많이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력의 기울이는 만큼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더없이 기쁩니다. 작년에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수 교육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계산도 잘 못하던 분들이 교육 후에는 직접 상점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었습니다.

봉사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듯,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봉사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벗바리는?

앞으로도 벗바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벗바리는 졸업한 동문들과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역할분담과 자원개발능력이 강점인 만큼, 우리만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쌓여 더욱 발전하는 '벗바리'가 되어,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내역

- 2010. 3 대구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공모전 당선
- 2010. 5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창업동아리 지정
- 2010. 6 한국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 동아리 공모전 당선
- 2010. 12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생 프로포절 공모전 금상
- 2011. 1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 우수동아리 선정
- 2011. 3 대구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공모전 당선
- 2011. 3 삼성생명 라이프가드 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당선
- 2011. 4 계명 1% 사랑나누기 프로그램 공모전 당선

WHAT'S NEW

주한 호주대사 ‘한국과 호주 –자연스런 동반자’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열려



샘 게로비치 (Sam Gerovich) 주한 호주대사는 지난 9월 5일(월)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한국과 호주 –자연스런 동반자’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에는 계명대 신일희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경영대학, 공과대학 재학생 등 약 230여 명이 참석했다. 게로비치 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호주가 수교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 –호주 우정의 해이기도 한 뜻 깊은 해” 라며 “한국과 호주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안보 동반자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게로비치 대사는 ‘한국 –호주간 동반자적 관계’ 와 ‘한국–호주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호주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연금 대학생 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



계명대 시각디자인과 노동혁(3학년) 학생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11 국민연금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노동혁 학생은 ‘칠교놀이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이란 작품을 출품해, 국민연금을 친근하게 알리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상(전체 1위,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노동혁 학생은 “현재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나아 들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된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계명대 관리원 자원봉사단, 폐품 모아 10년 넘게 이웃 도와



계명대 건물과 조경관리 등을 맡고 있는 관리직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단원 40여 명은 지난 9월 8일(목) 대구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쌀 1,000kg (2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쌀은 지역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50세대와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비인가 아동시설(공부방 등), 미자립 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계명대 관리원 자원봉사단이 마련한 성금은 매일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자원을 모아 판매한 돈으로 지난 2000년 11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지역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딱한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쾌척하는 등 10년 넘게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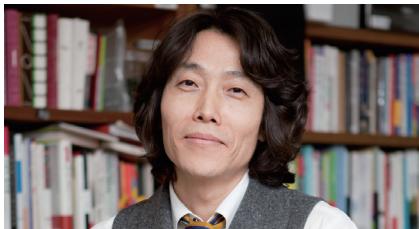
한글날 기념행사, 한국 – 베트남 동시 개최

계명대는 지난 10월 6일(목) 의양관 운체실에서 훈민정음 반포 565돌을 기념해 한국어학당 소속 외국인 유학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한글 OX 퀴즈, 단어 조합하여 읽기, 몸으로 단어 설명하기, 스피드 퀴즈, 몸으로 글자 만들기, 한국어 골든벨 등 한글을 쉽게 접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진행됐다.

계명대는 또 같은 날 베트남 타이응웬 대학에서 ‘계명한국어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기념잔치를 개최했다.

임현우 교수 ,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해



계명대 시각디자인과 임현우 교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1(red dot design award 2011)'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에서 본상 (Winner)을 수상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수상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파버 카스텔 한국지사와 협업으로 제작된 파버 카스텔 250주년 기념 캘린더는 연필을 이용한 독특한 바인딩 기법으로 디자인돼 제작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캘린더 넘기는 부분을 연필로 처리해 달력이 넘어가도 상단의 연필은 그대로 남아 있도록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011 기업가정신 로드쇼 개최



계명대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4일(화)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2011 기업가정신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계명대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들이 전시부스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공개, 그 동안의 성과를 선보인 자리이다. 또한 전문기들의 특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슈퍼 멘토-멘티 결연식과 IT·CT·DT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 석권해



계명대가 국기원 주최로 지난 8월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경기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2011 The World Taekwondo Hanmadang)'에서 여자종합격파 1위를 비롯해 주요 종목을 석권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세계 53개국 3,70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대거 참가해 총 11개 종목 52개 부문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계명대는 태권도학과 김현이 학생이 여자종합격파 1위, 김화평 학생 멀리뛰어엎차기 2위, 김민섭 학생이 멀리뛰어엎차기 3위, 권경상 학생이 높이뛰어엎차기 3위, 태권도학과 단체(김민섭, 박고훈, 윤건희, 김화평, 김성덕, 강종현, 박민규, 이동주, 이유리 이상 9명)가 태권체조 단체 2위 등을 차지하며, 태권도학과의 우수한 실력을 재확인시켰다.

3D 및 PLM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

계명대는 3D 및 PLM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9월 29일(금) 다쏘시스템 코리아(주)와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계명대는 공과대학 내에 공인 교육센터를 개소해 지역 내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3D 및 PLM 전문 강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센터 개소는 지역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핵심인재 육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신문고 제도 시행

계명대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신문고(계명행복특별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

조선시대 초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던 신문고 제도에서 착안, 장학에 이를 도입했으며, 경제적 사정에 의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독일 호프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계명대는 지난 10월 14일(금)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계명대 신일희 총장, 독일 호프대학교 (Hof University) 유르겐 레만 (Jurgen Lehmann)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문화 교류 및 공동 연구와 관련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



한승수 전 국무총리 (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는 지난 10월 10일(월)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에서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문제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서두를 연, 한 전 총리는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기후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심에 있다고 역설했다.

WHAT'S NEW

(재)동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재단법인 동산장학재단은 지난 9월 21일(수)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등학생을 비롯해 계명대 학부생, 대학원생, 계명문화대생 등 총 100명에게 1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국어교육과 신설로 도약의 기틀 마련

계명대는 2012년 국어교육과 신설 인가를 받고 이번 2012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부터 국어교육과 신입생 2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계명대는 신설된 국어교육과를 위해 탁월한 업적이 있는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교육 인프라를 활용, 교육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계명대 JS Planners, 전시기획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계명대 재학생 3명(신동희, 신수향, 장진희 등)으로 구성된 'JS Planners팀'이 지난 10월 7일(금) 한국무역전시학회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대전컨벤션뷰로가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제5회 대학(원)생 전시회 기획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전시회 개발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에서 'JS Planners팀'은 슬로라이프(Slow Life)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2013 부산국제슬로라이프엑스포'를 기획, 제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중적 관심을 유발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2위)을 차지, 대전광역시장상과 함께 상금 80만 원을 수상했다.

계명대 식스센스팀, '스포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계명대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된 '식스센스팀'이 지난 10월 5일(수) (재)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제1회 CISP(Creative Innovation Sports Project) 스포츠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스포츠 청년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Sport Job Fair 아이디어 기획 No.1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계명대 식스센스팀은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업종 지원자, 스카우터 혹은 에이전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선수들과 지원자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선보이고, 스카웃 혹은 채용까지 이뤄지는 취업박람회를 기획, 제안해 실제 적용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상을 차지했다.

금융보안연구원 곽창규 원장, '도전, 미래사회와 금융보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곽창규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은 지난 9월 5일(월) 성서캠퍼스 사회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전, 미래사회와 금융보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곽 원장은 최근 IT패러다임의 변화 및 스마트 환경이 수반하는 국내 전자금융 환경의 변화와 보안위협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9월 8일(목) 본관 대회의실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특강을 통해 그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정세와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어연극제 최우수상 및 최고연기상 휩쓸어



계명대는 지난 9월 3일(토)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 '제11회 일본어연극제'에서 최우수상과 최고연기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계명대 일본어문화과는 직접 대본을 쓴 '심야의 편의점' 이란 창작극으로, 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며 최우수상(1위), 상금 50만 원 수상과 함께 일본 연수 기회까지 얻었다.

강소주택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계명대 건축학과 졸업생(김동윤) 및 재학생 3명(김성태, 김미성, 최상열)으로 구성된 팀이 지난 8월 26일(금) 서울시가 주최하고 SH공사가 주관한 '강소주택 모델개발을 위한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1위)을 차지했다. 'For Better Housing : 강소주택 디자인 모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란 주제로 개

최된 이번 대회에서 계명대팀은 각기 다른 라이프 타입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초점을 맞춘 '슬라이딩 퍼니처 (Sliding Furniture)'를 출품, 강소주택에 슬라이딩 가구 시스템을 적용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시장 표창(최우수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백순현 교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국무총리상 수상



계명대 미술교육과 백순현 교수가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6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우리나라 미술 분야를 대표하는 최대, 최고의 디자인 대회로서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백 교수는 LED 소재의 가로등에 유비쿼터스 기능을 융합한 'IT융합형 네트워크 보안등'을 출품해 국무총리상(전체 2위)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권상철 학생, 日 문부성 국비유학생에 선발

계명대 일본어문화과 권상철(21) 학생이 2011년도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프로그램은 일본과 각국의 상호 이해 증진, 우호관계 심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파격적인 지원과 다양한 혜택으로 매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2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로써 권상철 학생은 10월부터 일본 동경외국어대학에 1년간 재학하며 학비 면제, 왕복 항공권, 매월 장학금(12만 3000엔) 자급 등 한화로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장학혜택을 누리게 됐다.

토목공학과 복합구조연구실팀, 대만국립지진센터 주최 내진구조물 경진 세계대회서 종합 2위

계명대 토목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복합구조연구실(CSL)팀은 지난 9월 25일(일) 대만국립지진센터 주최로 대만국립대에서 열린 '제12회 내진구조물 경진 세계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또 지도교수인 계명대 토목공학과 장준호(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 4대 지진 내구모델 콘테스트 중 하나로 알려진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홍콩, 인도, 뉴질랜드, 대만 등 8개국에서 42개 대학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계명대 CSL팀은 움직일 수 있는 독특한 브레이싱·구조물의 강조를 보강하기 위해 부착하는 판 또는 관(브레이싱·구조물 테스트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싱가포르 국립대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정책대학원, 8년간 대구광역시 6급 공무원 장기위탁교육과정기관으로 운영



정책대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대구광역시 6급 공무원 위탁교육과정기관으로 선정되어 8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현재(8기) 교육생을 포함하여 총 384명이 수료, 수료생 중 60여 명 이상이 사무관 이상으로 승진하는 등 명실공히 지역 공공행정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생들의 애교심 고취와 지역행정기관 중견 관리자들의 동문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6일(토)에는 수료생 동문들을 모두 초청해 홈카밍데이 행사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행사 당일 중견실무리더과정 동문회에서는 후학 양성을 위해 8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WHAT'S NEW

알마티 동산병원 증·개축 기념식, 알마티시립병원과 MOU 체결



동산의료원이 중앙아시아의 의료선교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산병원이 10월 19일 한기환 병원장과 민병우 사무처장, 손수상 한국-카자흐스탄협회회장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도이환 대구시의장, 하춘수 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개축 기념식을 가졌다.

알마티 동산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여 원을 투입해 병원 리노베이션을 완료했다. 이날 증·개축식과 함께 원격진료시스템 시연행사도 가졌으며, 임상병리검사 장비와 초음파 장비 등 첨단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증·개축과 함께 원격의료시스템까지 완비되면 앞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산의료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의료교류 및 알마티동산병원의 확대 운영에 상호협력키로 한데 이어 알마티 시립병원인 The Municipal Hospital of Emergency Aid와도 MOU를 체결했다.

또 동산의료원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알마티 현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24명의 봉사단은 하지정맥류 수술, 백내장 수술 등 현지인과 고려인 160여 명을 진료했다.

캄보디아 부총리 등 국빈 초대 의료관광 등 상호협력 약속



동산의료원 이구호 대외협력실장과 송성광 국제의료팀장은 지난달 캄보디아 부총리를 내방, 메디시티 대구 및 동산의료원의 역사와 우수한 의

료수준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Men Sam An(멘삼안) 캄보디아 부총리를 비롯해 훈센 총리의 여동생이자 부총리 정책고문인 Hun Sinath(훈시낫) 등 일행 9명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동산의료원을 비롯해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공식방문하는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국가교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부총리 일행의 초청을 성사시킨 동산의료원은 방문단이 대구에 머무는 동안 의전과 안내를 도맡아 '2010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중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한 실력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의료 글로벌 최고 자문관'으로 위촉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을 대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부총리 일행은 7월 27일 오전 8시 '메디시티 대구'를 대표하는 동산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PET-CT 촬영 등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어 환영식과 함께 112년 역사를 간직한 의료선교박물관을 관람하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동산의료원 '닥터 쉐프'에서 오찬을 하며 힐링푸드를 직접 체험했다.

동산의료원 개원 112주년 기념식 '자랑스런 동산인상' 도시상



동산의료원이 개원 112주년을 맞아 '세계 속의 의료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산가족 모두가 힘과 정성을 쏟자'며 결의를 다졌다.

동산의료원은 10월 5일 오전 8시 30분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개원 기념식에는 장황호 원목실장의 성경봉독과 말씀에 이어 차순도 의료원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박경식 교수(소화기내과), 이세엽 교수(안과), 권상훈 교수(산부인과) 등 '제5회 자랑스런 동산인상'에 선정된 교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112년 역사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그리스도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 교직원 서로가 끈끈히 연결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의 열매가 열리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동산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친절, 감성서비스 실천 다짐



동산병원이 ‘고객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동산병원은 9월 7일 오후4시 30분 대강당에서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사랑의 동산병원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친절슬로건 당선자 시상, 원내 친절강사 위촉, 사랑의 비타민 캠페인 소개, 작은실천 큰변화를 담은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종별 구성원 대표가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다짐’을 선서한 데 이어 차순도 의료원장과 한 기쁜 병원장이 함께 ‘친절하게 Smile, 다정하게 Smile, 사랑담아 Smile’을 친절슬로건으로 정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가졌다. 동산병원은 사랑의 동산병원 만들기 일환으로 ‘사랑의 비타민 캠페인’도 펼쳤다.

그 첫 번째 행사는 ‘행복비타민 캠페인’이 지난 8월 한달간 열려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전달하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으며, 9월에는 직원 상호간 따뜻하게 인사하는 ‘활력비타민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0월까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서장이 직원에게 편지로 마음과 격려를 전하는 ‘감동비타민 캠페인’을 벌였다.

동산병원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되새기고, 감성서비스를 실천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직 임용〉



의료선교박물관장
정철호(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대외협력처장
이세엽(의과대학 안과) 교수



사무처장
민병우(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의료원장행정보좌역
이명수 전 사무처장



부원장
김희철(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교육연구부장
이형(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대한 그간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대한피부과학회 스티펠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전동석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피선

진단검사의학과 전동석 교수가 10월 7일 무주에서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정기총회에서 2013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에 피선되었다.



김대현 교수, 국제금연학회장 취임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는 9월 2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금연학회(ISPTID)에서 주제발표하고,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12년 9월에 있을 10차 국제금연학회는 대구에서 개최된다.



조용원 교수, 세계수면학회 ‘Wayne Hening Award’ 수상

신경과 조용원 교수가 최근 캐나다 웨백에서 열린 세계수면학회에서 “하지불안증후군에서 뇌영상연구: 시상과 피질의 연결성” 연구로 세계적으로 수면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석학에게 주어지는 ‘Wayne Hening Award’를 아시아 처음으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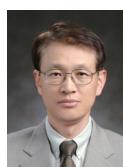
신영희 간호처장,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신영희 간호처장이 10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태찬 교수,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장 피선

소아청소년과 권태찬 교수가 최근 열린 2011년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에서 제3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권태찬 학회장은 영·유아, 청소년 돌연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석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스티펠 학술상 수상

피부과 이규석 교수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인 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63차 피부과학회 주제 학술대회에서 피부노화 관련 교원질 연구 및 난치성 유전성 피부질환에

계명사랑 1·1·1운동

1.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 – 월 1계좌 이상 약정 (1계좌 단위 : 1만 원)

1. 계명대학교 후원의 집 모집 – 구성원 한 사람이 1년에 1개 이상 후원의 집 유치

1. 품격 높은 “기삿거리” 발굴 – 한 부서 한 학기 한 개 이상 품격 높은 “기사끼리” 발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 안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이란 ?

계명인을 포함한 계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조성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은 “1 만원의 행복나누기”라는 모토 아래 운영 관리되는 제도로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약정 대상

동문, 학부모, 지역민, 계명대 교직원 등 계명대학교 후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약정 가능

약정 방법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약정서 작성 후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으로 우편, FAX, 방문 제출 후 약정

납부 방법

CMS 자동이체 : 기부자의 계좌에서 매월 기부금을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

기부자 예우와 혜택

- 기부하신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및 ‘소득세법 제 34 조 제 2 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 혜택 가능
- 감사 서신과 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정기간행물 발송
- 교내 각종 문화행사시 초청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53-580-6323, E-mail : 70270@gw.kmu.ac.kr)

계명대학교 후원의 집 안내

계명후원의 집은

계명대학교 발전에 함께하실 「계명후원의 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명후원의 집」이 되시면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기부하신 후원금은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입절차, 대상업체, 납부방법, 계명후원의 집 혜택

가입절차 : 작성하신 약정서는 직접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을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53-580-6324)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 : 계명대를 후원할 모든 업체 (상점, 사무소, 기관 등), 단, 비교육적인 업체는 제한됨

납부방법 : 약정금액은 매월 CMS를 통한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계명후원의 집에 드리는 혜택

- 교직원, 학생, 동문가족을 대상으로 후원의 집 가입업체를 본교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학교소식지, 학교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교내 각종 문화 행사시 초청
- 동산의료원 종합검진비 할인혜택
- 학교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 평생교육원 등 단기교육과정 입학우대
- 연간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한 세금감면 혜택
- 학교 민원업무시 주차 편의제공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53-580-6323, E-mail : 70270@gw.kmu.ac.kr)

품격높은 “기삿거리” 발굴

사업명

품격 높은 “기삿거리” 발굴

개요

한 부서 한 학기 한 개 이상 품격높은 “기삿거리” 개발

목적

- 대학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 되는 홍보 아이디어 개발에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유도
 - 미디어가 주목할 만한 대중 지향적인 소재 발굴, 미디어 노출 극대화
- 예) 특이한 학생 창업 소식, 미담 관련 소식, 학생회 특별 기획 행사(축제 대신 대민 봉사 등)

추진방법

- 1개 부서에서 1학기에 1개 이상의 홍보용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홍보팀에 관련정보 제공
- 홍보 아이디어 개발부서나 개인은 홍보 대상 관련 기초 정보 수집, 홍보팀 전달 후 추가 정보 수집에 협조
- 홍보팀은 언론관계를 활용하여 매체별 포맷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안 아이디어 전달
- 미디어 전달 내용을 대내외 홍보용으로 추가 활용 (전자메일,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홍보팀

(Tel. 053-580-6032, E-mail : lyonlee@gw.kmu.ac.kr)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1. 4. 16 ~ 2011. 10. 15

교수, 직원					
강세영	600,000	김정구	600,000	박준식	600,000
강승규	600,000	김정규	300,000	박찬수	102,335
강판권	2,700,000	김정배	601,972	박창모	120,000
계정민	300,000	김종규	300,000	박천만	300,000
고병철	100,000	김종덕	350,000	박춘화	900,000
공성훈	251,712	김종세	300,000	박혜선	300,000
곽성우	300,000	김종영	465,873	박희구	609,504
구교태	120,000	김종환(영어영문학과)	460,000	방대욱	100,000
구선희	206,183	김종환(총무팀)	600,000	배대일	600,000
권대중	600,000	김종순(경영공학과)	604,371	배상근	600,000
권성규	600,000	김종순(한국문화정보학과)	759,440	배영상	300,000
권업	176,924	김종효	180,000	배재영	540,000
권오균	600,000	김지영	600,000	배창범	120,000
권지훈	250,000	김진상	100,000	백수진	500,000
기도형	600,000	김진하	105,351	백승욱	600,000
김경미	100,000	김철수	3,100,000	변양원	1,049,041
김경찬	544,252	김춘해	300,000	변홍식	1,200,000
김관옥	300,000	김태권	600,000	서경석	400,000
김광협	120,000	김택수	300,000	서근섭	1,800,000
김권구	600,000	김판희	300,000	서봉호	600,000
김기석	300,000	김학윤	600,000	서정남	120,000
김기진	300,000	김한림	646,176	손유익	100,000
김기혁	600,000	김한수	340,468	손재영	300,000
김난희	600,000	김해동	600,000	손주옥	900,000
김명남	100,984	김현옥	300,000	손철수	300,000
김명애(건축학대학 행정실)	309,943	김혜경	635,903	송영정	300,000
김문영	245,328	김희중	600,000	송형석	300,000
김민정	600,000	나성영	600,846	신규철	360,000
김배환	300,000	남금우	177,888,956	신근식	909,807
김범준	300,000	남재열	150,000	신동수	168,547
김병선	120,000	남택수	169,850	신승현	600,000
김복규	600,000	류두하	363,007	신지숙	600,000
김봉섭	286,241	류숙희	150,000	신현명	600,000
김상홍	300,000	류재성	308,879	신형준	620,863
김선	300,000	류정우	600,000	안세권	600,000
김선정	664,338	류종호	180,000	안재범	120,000
김성숙	624,471	민경모	600,000	안정훈	180,000
김성은	20,257,531	민경진	300,000	양근우	430,200
김성훈(교육학과)	300,000	박경희	600,000	양봉석	600,000
김성훈(기계·자동차공학과)	600,000	박광희	600,000	양정혜	120,000
김수봉	600,000	박기현	100,000	엄우용	300,000
김숙찬	1,035,666	박남환	360,000	여박동	100,347
김승민	1,200,000	박명호	1,800,000	여은아	150,000
김신혜	125,397	박미경	600,000	오우성	1,800,000
김영문	1,251,302	박미애	107,217	오창우	122,842
김영철(건축학과)	250,000	박민수	120,000	우채영	300,000
김영철(공중보건학과)	300,000	박민정	150,000	유가효	600,000
김옥준	300,000	박병춘	600,000	유병환	181,400
김완준	900,000	박상범	300,000	유연옥	300,000
김용일	793,939	박상원	600,000	유옥희	615,728
김원진	600,000	박세정	600,000	유원기	600,000
김은경	150,000	박아청	2,000,000	유호욱	600,000
김인수	300,000	박애자	1,000,000	윤광렬	300,000
김장환	345,983	박영태	608,713	윤성환	500,000
김재두	300,000	박영호	300,000	윤영진	600,000
김재익	300,000	박용진	600,000	윤우석	600,000
김재현	200,000	박윤숙	100,000	윤원희	300,000
김재훈	600,000	박윤주	300,000	윤창준	500,000
		박재황	304,116	이권호	727,439
		박종선	100,000	이규형	300,000

이대주	600,000	장준호	600,000	홍동권	100,000
이동수	600,000	전경태	134,931	홍미정	150,000
이로리	300,000	정기성	150,000	홍성희	600,000
이명환	300,000	정막래	6,012,242	홍숙	222,737
이문규	600,000	정문영	300,000	홍순성	15,060,000
이백	600,000	정병두	300,000	홍순희	180,000
이병수	600,000	정승학	649,388	홍승표	500,085
이병환	600,000	정연인	600,000	홍원식	600,000
이부윤	600,000	정용주	300,000	황병훈	300,000
이삼빈	319,942	정우영	300,000	황일권	600,000
이상식	120,000	정응호	600,000	황재광	480,000
이석순	500,000	정중호	200,536	황재범	1,800,000
이선봉	600,000	정진갑	547,241	Dickey, Robert John	200,000
이선장	300,000	정철호	4,094,300	Freddie, Lim Wei Siang	300,000
이성노	200,000	정치훈	180,000	Michael C. E. Finch	600,000
이성용	600,000	정현희	1,300,000	Muller, Retief	1,800,000
이수일	106,471	정호진	607,356	Omnus, Wiebke Beatrice	250,000
이승근	300,000	제해성	360,000	Schabert, Jan Georg	300,000
이승한	600,000	조수성	504,532	Spahn, Christian	600,000
이승훈	150,000	조주현	600,000	Synn, Jienki	600,000
이승희	467,150	조현기	600,818	Wee, Desmond Shao-Min	125,000
이시경	701,230	주홍택	100,000	Yoon, Chun Suk	120,000
이시훈	120,000	진용주	120,000		
이신우	150,000	차유미	600,000	동문. 재학생	
이양섭	600,000	채용웅	300,000	(주)석창호	300,000
이영	600,000	천우광	300,000	(주)일코	1,700,000
이영기	300,000	최경훈	600,000	(주)해성오피스탑	600,000
이영숙	658,709	최두선	180,000	간호대동창회	9,374,000
이영찬	503,692	최명숙	700,000	계명대 성악과 동문회	3,000,000
이원재	300,000	최민권	300,000	계명대 총동창회	30,000,000
이원호	300,000	최봉기	600,000	권순정	100,000
이은희	1,209,539	최봉도	600,000	김계필	2,000,000
이인경	123,794	최성곤	300,000	김다인	180,000
이인선	10,050,000	최성우	600,000	김민지	182,400
이재구	187,311	최우정	600,000	김성준	100,000
이재길	300,000	최은정	235,478	김세련	100,000
이재룡	1,000,000	최을한	500,000	김아영	182,400
이재천	600,000	최인선	120,000	김연하	300,000
이종광	1,200,000	최종렬	500,000	김영오	180,000
이종국	250,000	최주섭	500,000	김영희	100,000
이종한	600,000	최진순	901,580	김은경	100,000
이주형	300,000	최하늘	300,000	김인숙	120,000
이준화	235,180	최해운	657,057	김정미	100,000
이중희	158,190	최현식	400,000	나재천	400,000
이진호	540,000	최현주	120,000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박사일동	100,000
이창섭	540,000	탁진영	120,263	멘데루시	500,000
이철근	600,000	하영석	270,152	도시계획학과 총동문회	5,000,000
이충권	120,000	하정철	300,000	박규진	600,000
이태관	600,000	하지수	600,000	박도연	182,400
이필환	300,000	하지연	150,000	박상은	480,000
이향순	600,000	한문식	709,184	박선경	182,400
이호형	430,200	한병진	300,000	박승철	100,000
이희선	644,614	한복희	600,000	박정혜	620,000
임경수	1,850,000	한여동	300,000	박준환	120,000
임문혁	600,000	한희정	150,000	방경환	120,000
임운택	585,102	허경미	600,927	배소진	150,000
임진수	1,200,000	허도화	1,800,000	배진주	182,400
장덕성	100,000	허정명	360,000	배충현	120,000
장병옥	508,520	허정윤	295,705	배태성	120,000
장원재	225,107	호광수	600,000		

장학금 약정 세부 안내

약정 대상

동문, 학부모, 지역민, 계명대 교직원 등 계명대학교
후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약정 가능

약정
방법

- **밸진기금 홈페이지**(<http://fund.kmu.ac.kr>)를 통한 인터넷 약정
 -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약정서 작성 후 계명대학교 대외협력팀으로 우편, FAX, 방문 제출 후 약정

四百四

- CMS 자동이체:)부자'의 계좌에서 매월)부금을 계명대학교 빌전기금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방법

기부자 예우와 혜택

- 기부하신 계명사랑 릴레이 정회금은 ‘법인서법 제24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 혜택 가능
 - 감사서신과 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정기간행물 발송
 - 교내 각종 문화행사 시 초청

제5부 학교 디이뮨리티

Tel.(053)580-6322~4, Fax.(053)580-6325

-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fund.kmu.ac.kr>
E-mail. 70270@gw.kmu.ac.kr
[7 0 4 - 7 0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한국어

704-701

1095 | 1995년 1월호 | 제1095호



-

百廿引言

۱۰

۱۷۰

[저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이란…

계명인을 포함한 계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조성한 장학금은 기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모금은 “만원의 행복나누기”라는 모토 아래 운영·관리되는 제도로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 기부 약정서

기부자 정보

기 부 자 직장 및 부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용으로 사용)
주 소 전 화 주 천 인	자 택 직 장 자 택 직 장 성 명:	우편물 수령지	우편령지

약정 정보

월 납부액 ★1개월 월 10,000원	<input type="checkbox"/> 1개좌	<input type="checkbox"/> 5개좌	<input type="checkbox"/> 10개좌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좌
약정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년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CMS 입금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input type="checkbox"/> 금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예금주 월 공제액 공제기간	(기부자와 다른 경우 작성) 주민등록번호 원장 (#)) 개월 공제))

위와 같이 계명사랑 릴레이 장학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인)

계명대학교 총장 구하

계명후원의 집		유관기관	
(주)기남상사	600,000	하늘정원	600,000
		호박추어탕	200,000
기타		50 51	
배혜림	150,000	(주)성서현대정비센터검사소	300,000
손강영	500,000	(주)세인트웨스튼호텔	1,800,000
손한철	120,000	(주)온누리여행사	250,000
송미령	500,000	강나루식당	250,000
신정희	100,000	강선장회도매	300,000
심봉현	120,000	강창식당	200,000
심상왕	150,000	개성보양탕	600,000
심재복	120,000	경주식육식당	300,000
안윤아	400,000	계명안경	250,000
안효대	478,000	광나라	300,000
양세정	300,000	구내서점	1,120,000
오봉익	120,000	구룡포회도매	250,000
윤경식	120,000	다빈치커피(계명대점)	300,000
윤옥주	2,000,000	달마루 숯불갈비	300,000
의과대학 동문교수 장학회	11,364,000	대광부분정비	600,000
이가영	200,000	대구텔레콤(공짜나라)	600,000
이경미	182,400	도도플라워	300,000
이경연	182,400	도시안스포츠센터 (주)도담	300,000
이금숙	120,000	독도참치	400,000
이단비	182,400	마마국시	300,000
이병철	300,000	마사카피	600,000
이보름	150,000	먹골한정식	300,000
이소정	180,000	명덕꽃집	300,000
이수락	120,000	무지개꽃집	400,000
이승봉	120,000	미광스포렉스	300,000
이영은	182,400	백두산	200,000
이영주	182,400	뱅[Vin]	600,000
이예슬	200,000	별고을한우	250,000
이이슬	200,000	보길도 해물낙지	300,000
이종만	300,000	부천생갈비살	200,000
이준욱	120,000	빨간우산애드컴	300,000
이찬우	120,000	서울떡집	300,000
이채명	100,000	석정	250,000
이태종	100,000	성서호림일식	300,000
임상표	300,000	성희불고기가든	300,000
장봉학	120,000	소답뜰	300,000
장운희	182,400	송림골가마솥국밥	300,000
장재봉	120,000	신승정패션디자인학원	300,000
전데례사	100,000	아덴힐즈	550,000
전지혜	300,000	아라쭈꾸미	300,000
정은주	180,000	아방궁	400,000
정재호	120,000	안계어탕	300,000
정책대학원 중견실무리더과정생	8,000,000	안동하회찜닭	300,000
조성욱	180,000	우럭1번지	250,000
조정기	120,000	우럭1번지	600,000
조희식	1,000,000	원원스포츠(나이키)	300,000
최대해	500,000	유끼초밥	180,000
최보혜	400,000	유빈차명상 예절교육원	180,000
추교원	128,501	이니스프리 계명대점	100,000
태권도학과 총동문회	1,350,000	전라도해물	300,000
한상용	150,000	정우초밥(김일국 사장님)	300,000
한정안	250,000	제주성산포갈치마을	200,000
허민정	150,000	좋은날	300,000
홍연주	150,000	주식회사 케이티	600,000
황병석	300,000	진수어학원	100,000
황현지	150,000	침한손칼국수보쌈	200,000
		침한우소갈비집	500,000
		투썸플레이스 대구계명대점	300,000
		평화육남매왕족발	300,000
		하나투어(주)여행닷컴	300,000
		Richardson W. Schell	1,162,600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5114 / FAX. 053-580-5454
<http://www.kmu.ac.kr>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704-701 Republic of Korea
TEL. 82-53-580-6022 / FAX. 82-53-580-6025

